

철강재 · 원유 가격 및 환율 변동의 건설업 영향

빈 재 익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jipins@cerik.re.kr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내수 산업으로 분류된다.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자재 및 장비업자, 건설 기능 인력 등이 현장에서 형성하는 복잡한 계약 관계를 감안할 때, WTO의 다자간 통상협상이나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어려운 산업이라는 의미가 내수 산업이라는 표현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내수 산업이라고 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나 환율 같은 대외 경제 요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철강재 가격

건설산업의 자재에서 철강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러, 철강재 가격 변화가 건설 원가와 수익성 변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

당하다. 특히, H-형강은 단면 성능이 우수하고 접합 등 시공성이 뛰어나 압축재, 휨재, 트러스, 인장재, 합성재 등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자재이다. 형강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008년에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철광석 가격 상승과 중국, 인도 등의 경제 성장을 반영하여 37% 상승했고 2009년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28% 하락했다. 형강의 원화 표시 수입물가지수는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63% 상승, 2009년에는 17% 하락했다.

반면, 형강을 비롯한 철강재 원료가 되는 철광석의 원화 표시 수입가격지수는 2009년에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 철광석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요인이 변화했

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 강세라는 환율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철광석 달러 기준 수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008년에 51%, 2009년에는 23%가 상승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철광석의 가격은, 먼저 철광석 공급사와 철강사 간에 협상을 통해 향후 1년 간 거래에 적용될 벤치마크 가격을 산정하고, 벤치마크 가격과 현물 가격을 고려하여 분기 단위로 적용되는 계약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수급 상황보다는 철광석 공급사와 철강사의 협상력이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철광석 공급사 간의 인수 합병 움직임은 브라질 Vale, 호주의 BHP Billiton, Rio Tinto 같은 Super Major를 탄생시

켰는데, 실제로 이들 3개 철광석 공급사가 전 세계 철광석 해상 물동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런플레이션(Ironflation)이라 불리는 철광석 가격의 상승 기조에는 중국, 인도 등의 빠른 경제 성장에서 유래하는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외에도 철광석 Super Major의 강화된 협상력이 큰 역할을 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인해 2009년에 나타난 철강재 가격의 하락 추세와 철광석 가격의 상승 기조 완화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위기 국면을 좀처럼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2010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가격

원유 가격 상승이 건설산업에 미치

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은 건설 공사비 상승을 의미한다. 원유 가격 상승이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건설 수요를 위축시키는 역할도 한다. 반면, 원유 산유국인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비중이 높은 해외건설의 경우에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수요 확대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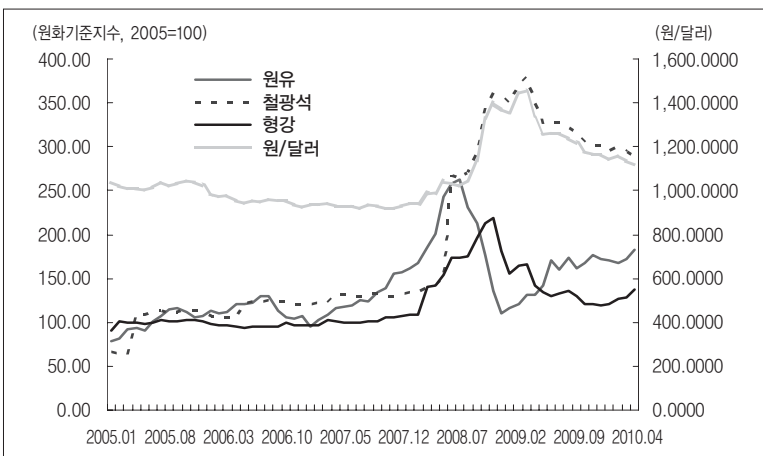
2008년 9월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에서 기인한 금융위기가 세계화된 금융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이끈 이후, 이전에 스파이크 현상을 보여주던 국제 원유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실제로, 원유의 달러 표시 수입 물가지수는 2008년에 37% 상승했으나, 2009년에는 34% 하락했다.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원화 표시 물가지수는 2008년에 57% 상승했고 2009년에는 22% 하락했다.

원유 가격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달러화 가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이 경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 자금 중 일부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와 달러화 가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2010년 국제 원유 가격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EU 지역 경제의 건전성이 필요하지만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화 지역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EU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재정 위기가 단기만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아, 미국 경제의 회복 역시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EU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져,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화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

주요 경제 요인의 변동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수.

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2010년 원유 가격은 2009년의 수준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환율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와 동조화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어 원화 가치도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환율 상승의 도움으로, 2009년 우리 경제는 41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했다. 이를 반영하여 2009년 이후에는 환율이 하향 안정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환율 변화는 철광석이나 원유 등 수입 원자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설 공사비와 건설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환율 변화는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기 국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수요 측면의 주요 변수가 된다. 끝으로, 환율은 금리에 대한 영향을 통해 직접적으로 내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즉, 원화의 강세는 정부가 정책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 원화의 약세는 정책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환율의 동향은 크게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 선호 경향의 진화 방향과 미국 경제의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자산 선호 경향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부도 위험이 완화되는지 혹은 심화되는지에 따라 약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다. 안전 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미국이 출구 전략을 시행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기가 회복하여 정책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장기 관점에서 녹색 건설로

2010년에 미국 및 유럽 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유로화의 퇴장과 유로지역의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유럽 경제의 회복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선진 경제의 침체 지속은 철광석과 원유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기는 하나,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우리 경제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환율도 현재의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기인하는 건설 공사비 상승 압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원유 가격 수준이 금융위기 이전의 슈퍼-스파이크 단계로 재진입하기 전에, 녹색 건설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서두르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구조물의 건설 단계에서보다는 운용 단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녹색 건설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재생 에너지 사용으로만 정의될 수는 없고,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패턴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국토 이용 및 도시계획의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사회간접자본 및 주거 시설 건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건설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혁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CERIK